

그 곳에 '제주' 잠녀가 있었네

사진가 강만보씨, 출가 잠녀 시리즈 마지막 「서해안의 제주해녀」 발간
살아있는 '기록' 흑백 필름 고집...12월 2~6일 도문예회관 2전시실 전시

등록 : 2010년 11월 29일 (월) 10:26:54
최종수정 : 2010년 11월 29일 (월) 10:26:5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강만보 작 '수경을 바로 쓰는 해녀'

"삼촌, 먼디까지 왕 속감수다"

고향 땅을 떠나 정말 먼데 까지나와 바다의 속가슴을 더듬어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은 필요치 않았다. 제주라는 동질감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내 힘든 작업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제주 여성 특유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은 느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사각 프레임에 담으면 될 일이다.

사진가 강만보씨가 출가 잠녀의 흔적을 좇는 3년여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진집 「서해안의 제주 해녀」 출간에 맞춰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자신이 만난 제주 해녀의 행적을 펼쳐낼 예정이다.

말이 쉽지 3년이란 시간은 짧지 않았다. 남해 섬을 구석구석 뒤지고, 동해 울릉도까지 훑어냈다. 그리고 다시 목포항에서 배를 타 흑산도를 찍고,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잠녀를 찾아 나섰다.

해안 특성 때문에 찾기 어려웠던 잠녀들의 흔적은 군산 어청도를 지나 태안반도에 가서야 간신히 밟을 수 있었다.

작가는 고운 얼굴을 골라 화려한 컬러 사진에 담으면서 몇 번이고 다시 찍기를 반복하기 보다 흑백 필름 사진을 고집했다.

검은 색 고무 작업복에 온몸으로 세월을 안고 사는 잠녀들을 알아가면서 생긴 '의식'같은 작업이다. 강 작가는 "힘든 작업에 고향에 대한 향수까지 깊게 배인 얼굴 주름이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기록"이라며 "흑백 필름 사진에 그들의 흔적을 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이자 존경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순간 '과거'가 됐다. 잠녀들이 일구고 지킨 제주의 근·현대사를 '옛날 일'처럼 치부하다 보니 아직도 가슴 가득 제주를 담고 있는 출가 잠녀들까지 시나브로 잊혀지고 있다.

강 작가는 "제주에서 보다 뱃물질이 많았던 까닭에 저절로 네젓는소리도 하는 '삼촌'들이 출잡아 2500명이 넘는 데다 2세 잠녀도 적잖다"며 "잊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758-0894,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